

청익 간행의 고려본 『금강반야바라밀경』*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Diamond Sutra* Published
by Cheong-ik During the Goryeo Dynasty

오 용 섭 (Oh, Yong-Seob)**

◁ 목 차 ▷

1. 서 언	3.2 서지적 특징
2. 간행의 주역	4. 가치와 의의
2.1 목암 혜찬	4.1 새로운 편성
2.2 발원과 主助緣	4.2 판본의 독자성
3. 편성과 특징	5. 결 언
3.1 합편	<참고문헌>

< 초 록 >

공민왕 19년(1370)에 석 청익이 발원하여 간행한 수진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이하 『금강경』으로 약칭)은 다른 고려본 『금강경』과는 달리 독특한 편성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금강경』 외에 『보현행원품』,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수능엄신주』, 『마리지천다라니』 등이 합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금강경』의 간행목적은 수지 독송함으로써 경전을 익히고, 또 외부의 재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편성한 사람은 사교가 자유로운 문인출신의 지식인이자 승려였던 목암 혜찬이었다. 그는 또한 불경과 주문이 끝난 다음에 간략한 해설을 달아 놓았다. 이렇게 새롭게 편성하고 해설까지 붙여 간행한 사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이 『금강경』은 고려인이 새롭게 편성하고 간행한 독자적인 고려 판본이라는 점에서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주문을 불경과 동등하게 합편해 놓았다는 사실에서 당시 다라니 신앙의 보편성도 엿볼 수 있다.

要語: 금강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수능엄신주, 마리지천다라니, 청익, 목암, 혜찬, 동우, 안집, 안극인, 승현, 묘장, 축운, 평찬

* 이 논문은 2015년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u.ac.kr)

접수일: 2016년 12월 4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ABSTRACT>

This Buddhist scripture by the name of *The Diamond Sutra* was published by monk Cheong-ik in 1370. *The Diamond Sutra* is a unique form of Buddhist scripture. Also with *The Diamond Sutra* come together four kinds of Buddhist scriptures and two kinds of dharani. By possessing *The Diamond Sutra*, people used to believe they would defend themselves against calamity. Mok-Am, the compiler of *The Diamond Sutra*, is an intellectual monk with a literary background. He added explanatory notes at the end of each Buddhist scripture and dharani, which was a new method that had not been previously extended to any compiler.

As such, Mok-Am of Goryeo Dynasty not only compiled *The Diamond Sutra* but also made a new Goryeo edition. In this way, I see *The Diamond Sutra* as the most valuable Buddhist scripture, and joining dharani shows Dharani faith of the late Goryeo Dynasty.

Key words: *The Diamond Sutra*, Dharani, Cheong-ik, Mok-Am, Hye-chan, Dong-woo, An-Jib, An-Geukin, Seung-Hyeon, Myo-Jang, Chuk-Woon, Goeng-Chan

1. 서 언

고려의 대장경과 敎藏의 간행은 방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왕실의 지원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사찰 또는 개인의 의지로 간행해낼 수 있는 개별 불경이나 불서는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그 중에서 『금강경』은 가장 많이 유통된 경전인데다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관하본을 따로 마련하여 간행하는 일이 많았다. 대개 권두에는 금강경계청과 정구업진언 등, 권미에는 각종 진언 등을 적절하게 수록하여 각각 다양한 구성과 형식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공민왕 19년(1370)에 석 청익이 간행한 수진본 『금강경』¹⁾은 여러 점에서 고려시대에 간행된 다른 『금강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금강경』 외에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이하 『보현행원품』으로 약칭),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수능업신주』, 『마리지천다라니』 등이 차례로 편성되어 있고, 각 불경과 주문이 끝난 뒤에는 그 경과 呪文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찰판과 사가판의 성격을 모두 갖춘 이 『금강경』은 당시 유행하던 불경과 주문 등을 합편하고, 또 독자적으로 관하본을 마련하여 간행된 불경이다. 이러한 구성과 형식으로 간행된 것으로는 이 『금강경』이 유일하며, 또한 고려말기의 불경 간행방식의 변화와 다라니 신앙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금강경』의 간행과 독자적인 특징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 이 『금강경』에 합편된 불경들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육경합부』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육경합부』와는 엄연히 다르다. 또 『금강경』을 간행하려는 발원에서 이 합편 불경이 완성된 사실을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합편 불경을 『금강경』으로 지칭한다. 이 『금강경』은 20장으로 된 수진본으로 앞의 4장은 원문을 잃은 부분이 제법 있다. 1장당 5폭으로 절첩되었으며, 전체 크기는 17.0×701.0cm이다.

이 『금강경』에 대한 조사 연구를 승낙해 주신 용담선원의 도영스님께 감사드린다.

2. 간행의 주역

이 『금강경』을 간행하고 인출하여 배푼 사람은 석 청익이었다. 그는 이 『금강경』을 간행할 때 主緣이었던 安輯의 조카뻘로 지조와 행실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는 전하는 바가 없다. 주연 안집을 제외한 다른 참여자들은 수희조연에 安克仁, 龜城郡夫人 勝賢, 江陵郡夫人 妙藏 그리고 竺雲 등이 동심발원으로 참여하였고, 판각은 宏贊이 맡았다.²⁾ 이 중에서 주연인 안집과 조연인 안극인은 석 청익과 함께 간행의 주역으로 볼 수 있겠다. 이들 외에 눈여겨 볼 인물이 있으니 바로 발문을 쓴 木菴 惠欝이다. 그는 전체의 내용을 편성하고 판하본까지 정서함으로써 이 『금강경』을 독자적인 고려판본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목암 혜찬을 중심으로 간행주역과 참여자들을 살핀다.

2.1 목암 혜찬

목암 혜찬이 이 『금강경』³⁾의 내용을 편성하고 판하본을 마련한 사실은 공민왕 19년(1370) 9월에 그가 짓고 쓴 다음의 발문에서 확인이 된다.

“신제 안집은 부처님을 믿음이 독실하였으므로 나와는 사이가 좋았다. 안집의 조카뻘 중에서 석 청익은 지조와 행실이 있었다. 멀리서부터 와서 ‘제가 『금강경』을 찍어 베풀고자 하오니, 목암선생께서 판하본을 마련해주시기를 승낙하시겠습니까?’ 하였다. 나 또한 이 일에 뜻을 두고 근심으로 삼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글씨를 써서 마치게 되었다. 이에 반야와 행원은 하나라도 버릴 수 없으므로 『보현(행원품)』을 이어서 수록하였으니 이것은 군더더기와 같다. 하물며 『사십이장경』, 『유교경』 등을 보태어 (부처님의) 처음과 마지막 (말씀)을 갖추었으니 어찌 군더더기에 또 군더더기를 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반야의 칼날을 사용하면서 이 군더더기를 빼버린다면 혹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 卷尾, “發願命刊印施釋清益] 同願主緣愼忖安輯] 隨喜助緣山夫安克仁] 同願龜城郡夫人 勝賢] 同願江陵郡夫人 妙藏] 宏贊刊] 同願正林典香 竺雲.”

3) 남권희는 “淸州牧 元興社 刊行의 金剛般若波羅密經과 高麗時代의 金剛經 刊行”(『고인쇄문화』 제6집, 2000, 167-175)과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82)에서 이 『금강경』을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또한 「마리지친다라니」와 「수능엄신주」는 더욱 비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 이것이다. 청익 스님을 위하여 공경히 쓴다. 여러 사람들이 속속들이 살핀다면 꼭 다행일 것이다. 1370년 9월 어느 날에 혜찬으로 새로 태어난 목암 동우가 발문을 짓고 쓰다.”⁴⁾

발문을 쓴 목암 혜찬은 이송인, 이색, 정추,⁵⁾ 민사평,⁶⁾ 원천석, 이침 등 당대의 지배층과 시로 교류할 만큼 詩作에 능하였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와 교류하였던 인물들의 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곧 이색(1328~1396)이 그를 위해 지은 시가 전하고,⁷⁾ “시단의 호걸인 혜찬과 함께 교류하기로 약속”⁸⁾하였다는 내용의 이송인(1347~1392)의 시도 전한다. 이렇게 당대 최고 문장가이자 관료들과 교류하던 그를 이침(1345~1405)은 詩書에 뛰어난 인물⁹⁾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목암 혜찬이 『금강경』의 발문과 관하본을 쓰게 된 배경은 당대 최고 수준의 문장가이자 달필가였기 때문이었다.

위의 여러 기록을 통해 木菴은 세속의 호, 惠攄은 불가에 입문한 뒤의 범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惠攄의 攄은 이색, 정공권, 민사평 등의 시에 “鑽木菴”¹⁰⁾으로

4) 木菴 惠攄, [金剛經跋]. “安愼衲, 篤信仏, 余因友善. 安之族姪, 釋清益, 有志行. 自遠過菴曰: 吾欲刊施金剛經, 倩墨本於菴諾乎? 曰: 余亦志此, 而難之久矣, 子克有終, 輒作拙字訖. 乃謂般若行願, 不可偏廢, 故以普賢, 續解空, 此猶贅也. 矧加以六七章, 遺教經, 縱備首尾, 豈贅上贅哉? 然用般若鋒, 及割贅, 或有覺痛者矣. 且摩利呪, 尤可笑也. 但今日, 護身符子, 在是乎. 敬爲益師書. 脫心益心者, 詳察幸甚. 洪武(武자의 내리긋는 희은 결획)三年(1370)九月有日木菴新生惠攄東兩書并跋.”

5) 鄭樞, 『圓齋先生文稿』 卷上, 詩, “松蟲”用木菴韻.

鄭樞, 『圓齋先生文稿』 卷上, 詩, “次韻戲鑽木菴.”

鄭樞, 『圓齋先生文稿』 卷上, 詩, “鑽木菴詒書讓予音問久曠. 又謂嘗於手簡, 不書姓名, 簡傲已甚, 有 有詰其名, 其將謂誰之語, 書此以答.”

6) 閔思平, 『及菴詩集』 卷2, 律詩, “次惠鑽上人詩韻, 呈愚谷.”

7) 李穡, 『牧隱詩藁』 卷6, 詩 “雲游”, “手中一枝竹, 脚底九州山, 流水情相得, 浮雲影對閑. 猿吟岑寂裏, 隼度渺冥間, 且問草鞋債, 他年還不還.” 右二首, 爲木菴作.

8) 李崇仁, 『陶隱先生詩集』 卷1, 「次木菴師韻. 師連賦兩篇效古人體惠攄, “詩壇師爲傑, 令嚴如火烈, 帶月兩章佳, 向壁三日閱, 迴脫蔬筍餘, 誰非芻豢悅, 秀骨秋山高, 沖襟古井漱, 從今約同游, 門前謝塵轍.”

9) 李詹, 『雙梅堂先生篋藏文集』 卷1, 詩類, “次木菴朴東兩三首”, “避世還投世, 乾坤性命通, 詩書才涉獵…”

10) 李穡, 『牧隱詩藁』 卷4, 詩, “次鑽木菴詩韻 三首.”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鑽으로도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의 속세 이름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다른 시의 詩註와 詩題에 전한다. 곧 “이 시축은 목암선생 朴東雨와 金坤, 釋恬軒, 愚公, 晦軒, 古鏡 등이 서로 갱화한 시를 한 축으로 엮은 것이다.”¹¹⁾라는 원천석의 시주와 “木菴朴東雨”¹²⁾가 들어간 이침의 시제가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속성은 박씨이고, 본명은 동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한편 그가 불가에 입문한 시기는 분명하지는 않다. 그런데 민사평(1295~1359)이 그를 “혜찬스님”¹³⁾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민사평이 사망한 1359년 이전에 승려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침은 시에서 그가 “세상을 피했으나 다시 세상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같은 시의 詩註에서는 “목암이 머리를 잘랐다가 다시 길렀기 때문”¹⁴⁾이라고 하였다. 목암 혜찬이 이후 어느 시기에 환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다.

2.2 발원과 主助緣

이 『금강경』의 간행을 발원한 석 청익은 인출하여 베푸는 일까지 하였으므로 이 『금강경』의 간행과 배포는 그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고려 말기의 명신으로 알려진 安輯의 조카뻘 되는 승려였다. 그런데 이 『금강경』에는 간행 비용을 지원한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안집이 동원자이자 主緣 역할을 맡았으므로 그의 절대적인 지원을 통해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

鄭樞, 『圓齋先生文稿』 卷上, 詩, “次韻戲鑽木菴.”
 鄭樞, 『圓齋先生文稿』 卷上, 詩, “鑽木菴詒書讓予音問久曠。又謂嘗於手簡, 不書姓名, 簡傲已甚, 有有詰其名, 其將謂誰之語, 書此以答.”
 閔思平, 『及菴詩集』 卷2, 律詩, “次惠鑽上人詩韻, 呈愚谷.”
 11) 元天錫, 『耘谷行錄』 卷4, 詩, “題元伊川所示詩卷後”, “此軸乃木菴先生朴東雨, 簡甫先生金坤, 釋恬軒, 愚公, 晦軒, 古鏡, 互相賡和, 成一軸。又伊川, 漁隱, 韓先生子龍, 與太素堂元公相和, 成三十八首也.”
 12) 李詹, 『雙梅堂先生篋藏文集』 卷1, 詩類, “次木菴朴東雨三首.”
 13) 閔思平, 『及菴詩集』 卷2, 律詩, 次惠鑽上人詩韻, 呈愚谷, “禪師愛儒老, 詩酒樂交親, 移籛杏壇教, 分廚香積珍.”
 14) 李詹, 『雙梅堂先生篋藏文集』 卷1, 詩類, “次木菴朴東雨三首”, “避世還投世……” 詩註, “木菴剃頭還長故云.”

흥 안씨인 안집은 安軸(1287~1348), 安輔의 아우이자 당대의 명신으로 간행당 시에는 연로하였을 것이다.

隨喜助緣을 맡은 안극인(?~1383)은 죽주 안씨로 李承休(1224~1300)의 손녀 사위이다. 그의 딸이 1366년에 공민왕의 定妃(?~1428)가 되자¹⁵⁾ 동지밀직으로 승진되었다. 그러나 이 『금강경』을 간행할 때는 마침 魯國公主 影殿의 토목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글을 왕에게 올렸다가 일을 방해한다는 죄목으로 집으로 쫓겨나 있던 시기였다.¹⁶⁾ 그는 이보다 10년 전인 공민왕 9년(1360)에 경주에서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再刊하는 등 서책의 간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외에도 龜城郡夫人 勝賢, 江陵郡夫人 妙藏, 竺雲 등도 같은 마음으로 발원하였다. 판각을 맡은 宏贊은 우왕 2년(1376)에 목암 혜찬과 친근하였던 정추의 선친인 鄭誦(1309~1347)의 시집 『雪谷詩藁』를 간행할 때도 판각을 맡았던 판각전문 승려였다.¹⁷⁾ 이렇게 이 『금강경』은 순흥 안씨인 안집과 석 청익의 지원과 발원아래 목암 혜찬이 판하본을 정서하고, 평찬이 판각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었다.

3. 편성과 특징

3.1 합편

고려대장경에는 鳩摩羅什, 菩提流支, 眞諦 등 세 사람이 번역한 3종의 『금강경』과 玄奘이 번역한 『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 義淨이 번역한 『佛說能斷金剛

15) 『高麗史』 第89卷, 列傳 2, 后妃 恭愍王. “定妃安氏, 竹州人, 竹城君克仁之女.”

『高麗史』 世家 41, 恭愍王 15年 10月. “丁丑 … 右常侍安克仁女, 爲妃.”

16) 『高麗史』 第111卷, 列傳 24, 柳濯. “克仁等, 從之上書曰: 今歲大旱, 五穀不登, 民將無食, 乞停中外, 土木之役. 王大怒曰: 是沮吾影殿之役也, 下濯思道獄, 以克仁定妃父, 勒歸私第.”

17) 『雪谷詩藁』 跋. “先生之令嗣, 密直提學公, 恐其湮沒, 請之懇懇, 悉孚吾意, 卽命宏贊師鉅梓, 傳之無窮. 時洪武丙辰(1376)正月 日 奉翊大父安東大都護府使兼管內勸農兵馬使 李邦翰跋.”

般若波羅蜜多經』 등이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개별로 간행된 『금강경』은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대장경에 편입된 『금강경』과는 달리 각각의 간행연유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금강경』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개별로 간행된 고려본 중에서 간기가 확인되는 『금강경』¹⁸⁾들을 시기 순으로 대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유간기 고려본 『금강경』 대비¹⁹⁾

구분	간행시기	간행자 및 주역	특징 및 합편
1	정종 8년 (1042) ²⁰⁾	崔積良(臨陂縣令) 간행	수진본 절첩장(24행 10자) 마지막 4장만 남은 잔본 • 권미: 금강반야무진장다라니 등 7종의 다라니와 진언
2	고종 1년 (1214) ²¹⁾	探古(群生寺 住持) 간행 周通富 서 淸守 孝如 판각	권자본(36행 16자) • 권두: 금강경계경, 정구업진언, 청팔 금강, 청사보살, 발원문, 운하법 • 권미: 반야진언, 금강십진언

- 18) 고려본 금강경의 판본에 대한 최근의 조사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남권희, “淸州牧 元興社 刊行의 金剛般若波羅密經과 高麗時代의 金剛經 刊行,” 『고인쇄 문화』 제6집(2000. 1), 167-175.
최연주, “고려시대 金剛般若波羅密經 彫成 현황과 書誌的 성격,” 『석당논총』 61집(2015. 3), 84-85.
- 19) 간행시기가 분명한 고려 간본 중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서명으로 간행된 경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고려본으로 추정되나 간기가 없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금강경』(8행16자본)은 제외하였다. 또 목정배 교수가 “간기가 분명하지 않으나 재조고려 대장경보다 반세기여 상회하는 것으로 명종 9년(1179)에 누판 유통된 천로야보선사의 『금강반야바라밀경』 목판본이 있다.”(목정배, “한국금강경유통고,” 『불교학보』 11집(1974), 222)고 하였으나 이 판본 역시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20) 정종 8년(1042)의 최적량 간행본과 우왕 4년(1378)의 정추 간행본은 실물이나 화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남권희의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7-10)와 “淸州牧 元興社 刊行의 金剛般若波羅密經과 高麗時代의 金剛經 刊行”(『고인쇄 문화』 제6집, 2000, 167-175)에서 인용하였다.
- 21) 국보 제206-5호, 권미. “上祝, 皇齡萬歲, 國泰民安, 兵戡年豐, 法輪常轉 … 貞祐二年甲戌十月日, 道人 迅機 誌. 無求居士 周 通富 書. 群生寺住持, 重大師探古, 施財刊板. 符仁寺大師, 淸守 孝如 刻.”

청익 간행의 고려본 『금강반야바라밀경』

구분	간행시기	간행자 및 주역	특징 및 합편
3	고종 15년 (1228) ²²⁾	李紘, 文光 등 [간행] 悅可 서, 梵字大藏神呪는 惠歸 서 釋光 등 판각	소자 권자본(50행 23자) 5장중 4장의 전본 • 범화경보문품, 화엄경행원품, 범자대장신주 등을 함께 간행
4	고종 24년 (1237) ²³⁾	최우 간행 釋光, 大升 등 판각	대자본 권자본(16행 11자) • 권두: [발원문] • 권미: 반야진언, 보결진언
5	고종 32년 (1245) ²⁴⁾	鄭晏 간행(남해)	선장(36행 16자) • 권미: 반야진언, 금강심진언
6	충렬왕 31년 (1305) ²⁵⁾	六具·朴知遙 [간행] 全一 등 판각 청주 元興社	선장(8행 17자) • 권두: 서문 • 권미: 육조구결후서
7	충숙왕 복위8년 ²⁶⁾ (1339)	姜金剛, 一岳 [간행] 1311년 간본의 번각	수진본 절첩장(63행 10자, 1절은 7행 10자) • 권두: 호법선신상, 청법상, ²⁷⁾ 금강경계정, 정구업진언, 청팔금강, 청사보살, 발원문, 운하법 • 권미: 불정심다라니 등 몇 종의 범어다라니와 주문 그리고 如意印, 厭諸鬼符 등 10종의 符印[충선왕 3년(1311)본을 중간할 때 보완된 것으로 추정됨]
8	공민왕 6년 (1357) ²⁸⁾	金貯·志禪·祖桓 [간행] 省珠 法宏 등 판각 전주 德雲寺	권자본(행자수 부정) • 권두: 설법도, 보공양진언, 발원문, 운하법, 개경송 • 권미: 보결진언, 사구계, 마하반야바라밀다, 소재묘길상신주, 묘법연화경심, 사제법, 십이인연법, 육바라밀법, 대승경전 일십정례, 삼귀의계, 삼매야계, 사대원, 대자보살회향계

22) 보물 제1095-6호.

23) 국보 제206-20호, 권미. “守大傳門下侍中, 上柱國將軍, 判御史台事, 晉陽候崔瑀, 特發弘願以大字, 金剛般若經, 彫板流通 … 時丁酉十二月日誌.”

24) 국보 제206-6호, 권미. “十方諸佛國土, 鏤木印施云. 乙巳(1245) 三月日優婆塞鄭晏誌.”

25) 보물 제1408호, 권미. “道人六具, 居士朴知遙等, 同願伏爲 … 大德九年(1305)乙巳高麗國淸州牧元興寺開板印施無窮者.”

26) 보물 제775호, 제1095-1호, 원간기. “覺圓, 泊同願比丘, 達玄·永興懷英·千備·希印·行金·宗信 … 時至大四年(1311)五月日誌.”

구분	간행시기	간행자 및 주역	특징 및 합편
9	공민왕 12년 (1363) ²⁹⁾	薛師德(남원부사), 金英起 [간행] 信之 서, 法戒 筆 信明·法空 판각	절첩장(전 36절, 1절은 7행 12자) 도해 금강경 본문 앞 권두 결락 • 권미: 반야진언, 십다라니, 보결진언
10	공민왕 19년 (1370)	청익·안집 등 간행 목암 혜찬 서 평찬 판각	수진본 절첩장(8-9행 22-26자) • 권두: [금강경계정], 정구업진언, [청 팔금강], [청사보살], [발원문], [운하범] • 권미: 금강십진언, 반야무진장진언, 보결진언 • 보현행원품,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수능엄신주, 마리지천다라니 등 합편
11	우왕 4년 (1378)	정추 간행 李仁隣 판각	절첩장 • 권미: 반야무진장진언, 보결진언
12	우왕 13년 (1387) ³⁰⁾	柳珣 姜仁富 [간행] 志淡 판각 [金沙寺]	선장(10행 21자) • 천로금강경서

- 27) “호법선신상, 청법상”이라는 변상도 명칭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해당 경전의 해제를 따랐음.
- 28) 보물 제877호. 변상도에 대해 친혜봉 교수는 『한국전적인쇄사』(서울: 범우사, 2001, 94)에서 “開卷劈頭를 說法圖로 장엄하게 꾸민 것이 이채롭다. 主佛인 大乘敎主釋迦牟尼佛이 蓮花臺에 正座하고 無量壽佛이 대좌하고 있으며, 釋迦佛 앞에서 10대제자의 하나인 須菩提가 說法을 講問하고 그 주위를 護法金剛夜叉와 靈鳥使者가 호위하고 있는 장면이다. 고려 불서 중 이러한 형식의 彫板은 여기서 처음으로 보는 귀중한 자료이다.”라고 하였다.
- 29) 보물 제696호.
- 30) 우왕 13년(1387)에 근비의 지원으로 강인부가 주도하여 간행하고, 이색이 발문을 붙여 간행한 『금강경』(『천로금강경』)은 현재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권두에 淳熙 己亥(1179)에 慧藏 無盡이 쓴 川老金剛經序와 권미에 鄭震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판본 중에서 보물 제974호와 보물 제1127호는 각각 『금강반야바라밀경』, 『천노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보물 제721호는 『금강반야바라밀경』 뒤에 진언과 靈驗讚이 덧붙여져 있고, 보물 제919호는 『범망경』과 합철되어 지정명칭은 『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그러나 이 4종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모두 우왕 13년(1387)에 간행된 동일한 판본이다. 아울러 보물 1719호로 지정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중의 『금강반야바라밀경』도 동일한 판본이다. 이 판본은 동치 8년(1869)에 경기도 광주의 수도산 봉은사에서 번각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현재 간기가 확인되는 고려본 『금강경』 12종은 대개 다양한 진언이나 다라니, 符印 등이 특정한 배열원칙 없이 편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고종 15년(1228)에 간행된 소자본 『금강경』은 합편형식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것은 “『금강경』, 『법화경보문품』, 『화엄행원품』 등을 道人 悅可가 쓰고, 권말의 『梵字大藏神呪』는 惠歸가 쓴 것을 간행하였다.”³¹⁾는 慧謙(1178~1234)의 발문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함께 간행한 『금강경』, 『법화경보문품』, 『화엄행원품』 등은 분량이 많지 않고 가장 널리 이용되는 불경이다. 그렇다면 합편형식으로 간행되었거나 혹 별도의 목판에 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출 이후에 합책 형태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짙다.³²⁾

또 다른 사례로는 고종 32년(1245) 3월에 鄭晏이 간행한 『금강경』이다. 당시 정안은 이보다 두 달 전인 정월에 『보현행원품』을 이미 간행해 놓았다.³³⁾ 두 달의 시차를 두고 따로 간행된 『금강경』과 『보현행원품』이 합철된 판본³⁴⁾이 전한다. 그렇다면 간행이후 합철 형식으로 유통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고려에서는 『금강경』을 비롯한 주요 경전을 합편 또는 합철하는 방식은 13세기 중기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이 『금강경』은 『금강경』 외에 『보현행원품』,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³⁵⁾ 『수능엄신주』, 『마리지천다라니』³⁶⁾ 등이 합편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금강경』을 간행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 불경과 다라니 등을 합편하여 간행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합편 불경의

31) 慧謙, 跋. “乃請道人悅可, 隸書金剛般若, 法華普門品, 華嚴行願品. 又請三重惠歸, 梵書大藏神呪… 雕板印施… 戊子(1228)四月上司 祖月庵 無衣子 跋.”

32) 현전하는 금강경은 전 5장중에서 낱장형태로 전하는 4장이다.

33) 권미. “乙巳(1245)正月望日 優婆塞鄭晏誌.”

34) 동학사 아미타불좌상 복장 불서 중 『금강경』과 『보현행원품』 합철본.

35) 고려시대에 간행된 『불설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등 3경의 주석 합편본은 3종이 알려져 있다. 모두 송나라의 守遂(1072~1147)가 주석한 것으로 중간본이다. 몽산 덕이는 서문에서 “以四十二章經, 遺教經, 滄山警策, 謂之佛祖三經”과 같이 이 세 종의 경을 『불조삼경』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민왕 10년(1361)에 중간한 전주 원암사본의 발문에는 이 셋을 “右三經”과 같이 三經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우왕 10년(1384)의 중간본에는 李穡이 발문에서 “重刊佛祖三經”과 같이 『佛祖三經』이라고 하였다.

36) 락철환, 『시공불교사전』. “보통 비교적 긴 주문을 다라니,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 하지만 엄밀하게 구별하지는 않음.”

풍조는 조선 초기에 『육경합부』 형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서지적 특징

먼저 『금강경』은 제1장부터 제7장, 『보현행원품』은 제7장부터 제13장, 『사십이장경』은 제13장부터 제15장, 『불유교경』은 제15장부터 제18장, 『위산경책』은 제18장부터 제20장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장인 제20장에는 『위산경책』 뿐 아니라 「수능엄신주」와 「마리지천다라니」 그리고 동원자와 참여자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금강경』과 『보현행원품』은 고려중기부터 합편 또는 합철되던 불경이었음은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등은 禪宗에서 중시하는 경전으로 『불조삼경』이라는 명칭으로 고려에서도 3차례 정도 번각 간행된 불경들이다.³⁷⁾

板首의 윗부분에 『금강경』은 “金”, 『보현행원품』은 “行”, 『사십이장경』은 “四”, 『불유교경』은 “遺”, 『위산경책』은 “山” 등 각 경의 대표성 있는 외자의 題名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각 불경의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수능엄신주」와 「마리지천다라니」는 『위산경책』과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명이나 장수의 표시는 없다. 다만 경문 모두가 수록된 5종과는 달리 「수능엄신주」는 행에 걸쳐 3종의 呪文, 「마리지천다라니」 역시 불공이 번역한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 중에서 경문을 제외한 3종의 주문만을 발췌 수록해 놓았다.

한편 이 『금강경』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불경과 呪文이 끝난 다음에 목암 혜찬의 간략한 해설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보통 간본 불경은 개인이 기술한 내용을 삽입하지 않으므로 이런 방식은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해설 내용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금강경』은 불경의 유통과 함께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고려말기에 누구나 이를 수지 독송하면 외부의 재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밀교의 다라니

37) 송나라 승려인 守遂(1072~1147)가 주석을 달고, 원나라 승려인 蒙山 德異(1231~1298)가 하나로 모아서 서문을 직접 쓰고 편찬하였다.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물 제694-1, 694-2, 695, 1224-1, 1224-2호 등이 있다.

신앙이 간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금강경』은 독특한 합편방식은 물론 해설까지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고유한 특징을 가진 고려말기의 합편 불경인 셈이다. 이제 수록된 각 불경과 주문에 대해 목암 혜찬의 해설을 중심으로 살핀다.

3.2.1 『금강경』

『금강경』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널리 유통된 불경이다. 곧 帝釋精舍에 있던 탑과 白城山寺 묘길상탑에 『금강경』을 베껴 두었다는 기록³⁸⁾이나 또 『금강경 석편』³⁹⁾과 『금강경판』⁴⁰⁾의 실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유통 경전으로서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여러 한역본 중에서 구마라집 번역본이 널리 유통되었고, 이 『금강경』도 구마라집 번역본이다. 제1장 제1행부터 제7장 제6행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판수제와 장수의 범위는 “金一”에서 “金七”까지이다. 금강경계청, 정구업진언, 청팔금강, 청사보살, 발원문, 운하법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이 중에서 정구업진언을 제외하고는 제목 없이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다음 행에는 『금강반아바라밀경』이라는 경제목과 “…沙門鳩摩羅什奉 詔譯”이라는 번역자 표시가 있다.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구마라집을 “사문”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고려대장경의 꺾함에 편입된 『금강경』에는 “三藏”으로 표시되어 있다. 번역승으로 삼장에 정통하다는 존승의 의미까지 있는 “삼장” 대신에 “사문”으로 표시된 사실을 볼 때 이 『금강경』을 필사할 때의 臺本은 사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38) 觀世音應驗記, 『한국사대이타베이스』. “百濟武廣王, 遷都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 歲次己亥冬十一月, 天大雷雨, 遂災帝釋精舍. 佛堂七級浮圖, 乃至廊房, 一皆燒盡. 塔下礎石中, 有種種七寶, 亦有佛舍利, 眇水晶瓶. 又以銅作紙, 寫金剛波若經, 貯以木漆函. 發礎石開視, 悉皆燒盡.”

39) “七佛庵出土金剛經石片”,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40) 국보 제123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조원고, “益山 王宮理 五層石塔 발견 舍利莊嚴具에 대한 研究,” 『백제연구』 제49집(2009. 2), 61-96.

경이 끝난 뒤에는 금강심진언, 반야무진장진언, 보결진언 등의 진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청을 위해서는 먼저 “정구업진언을 염송한 후에 팔금강과 사보살의 명호를 청하게 된다.”⁴¹⁾ 그래서 권두에 금강경계청이 있으면 정구업진언, 청팔금강, 청사보살 등이 함께 수록되는데, <표 1>에서 보듯이 고려본 『금강경』은 동일한 양식을 보인다. 권미에는 본문보다 두 글자 아래 위치에 다음과 같은 3행의 해설이 있다. 이 내용은 혜능의 서문⁴²⁾과 『금강경』의 『持經功德分』 등을 참고하여 해설한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경(『금강경』)은 상(相)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머무름(住)이 없는 것으로 몸을 삼으며, 미묘하게 있는 것으로 용(用)을 삼는다. 달마대사가 서쪽 인도에서 오셔서 이 『금강경』의 뜻을 전하셨으니, 사람들이 이치를 깨닫고⁴³⁾ 성품을 보게 하여 성불토록 한다. 그래서 삼시에 몸과 목숨이나 진귀한 보배를 보시하는 것이 오히려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의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⁴⁴⁾

3.2.2 『보현행원품』

『보현행원품』은 정원본 『대방광불화엄경』의 마지막 제40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현보살의 수행과 소원을 기록한 것으로 화엄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7장 제8행부터 제13장 제15행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판수제와 장수의 범위는 “金七”부터 “行六”까지이다.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이라는 경제목과 “闍賓三藏法師般若奉 詔譯”이라는 번역자 표시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경이 끝난 다음에는 속질만보현다라니, 보현보살멸죄주, 보현보살옹호수지진언 등의 다라니와 진언이 있다. 권미에는

41) 金剛經啓請. “若有人, 受持金剛經者, 先須至心念, 淨口業眞言. 然後, 啓請八金剛, 四菩薩名號, 所在之處, 常當擁護.”

42) 慧能, “曹溪六祖禪師序”. “夫金剛經者, 無相爲宗, 無住爲體, 妙有爲用. 自從達磨西來, 爲傳此經之義, 令人悟理見性.”

43) 『한글대장경』 제243책 p.150.

44) [木菴 惠攢]. “右經, 无相爲宗, 无住爲體, 妙有爲用, 自從達磨, 西來爲傳. 此經之意, 令人悟理, 見性成佛. 所以三時, 身命珍寶布施, 尙不及持經功德, 万分之一.”

본문보다 두 글자 아래 위치에 다음과 같은 4행의 해설이 있다. 이 내용은 道殿의 『현밀원통성불심요집』⁴⁵⁾을 참고하여 설명한 것이다.

“道殿대사께서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가 아니지만 『화엄경』이 제일 존귀하고 오묘하다. 이것은 여러 부처의 정수이고 보살의 마음이다. 삼장을 모두 갖추었고 오교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데 범본에는 십만개가 있다. 이 곳에서의 번역은 모두 180권이 되는 세 종류의 번역본이 있는데 비록 글의 뜻은 넓으나 가장 요점이 되는 것이다. 별행 보현행원일품은 화엄의 열쇠이자 수행의 중추가 된다.’고 하시었다.”⁴⁶⁾

3.2.3 『사십이장경』

『사십이장경』은 불교의 요지를 42장에 걸쳐 간략하게 설명한 최초의 한역 불경이다. 제13장 제16행부터 제15장 제37행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판수제와 장수의 범위는 “行六”부터 “四二”까지이다. 『사십이장경』이라는 경제목과 “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이라는 번역자 표시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권미에는 본문보다 한 글자 아래 위치에 다음과 같은 3행의 해설이 있다.

“오른쪽에 있는 경(『사십이장경』)은 한나라 명제 때 가섭마등과 축법란이 서축(인도)에서 백마를 타고 와서 백마사를 창건하고 불법을 봉안하니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당시 도사들이 소를 올려 불교와 도교의 경전에 불을 지르고자 하니 황제는 백마사에 두 개의 단을 설치하고, (이들을) 나누어 둔 다음 불을 질렀다. 도교 경전은 모두 탔으나 이 경만은 그 전과 같았다. 이에 도사들과 백성들이 함께 출가하였다.”⁴⁷⁾

45) 道殿, 『顯密圓通成佛心要集』 卷下(『大正新修大藏經』 46冊, 1004). “於顯教中, 雖五教不同, 而華嚴一經, 最尊最妙. 是諸佛之髓, 菩薩之心, 具包三藏, 總含五教, 梵本有十萬偈, 此方已翻譯者, 或八十卷六十卷四十卷等. 雖文義廣博, 其中最津要者, 唯別行普賢行願品一卷經文, 是華嚴之關鍵, 修行之樞機. 可讚可崇, 西天道流, 無不依之修行也.”

46) [木菴 惠攢]. “道殿師云: 佛一代說, 雖非一, 而華嚴經, 存存取妙. 是諸佛之髓, 菩薩之心. 具包三藏, 總含五教, 梵本有十萬偈. 此方所譯, 三本摠一百八十卷, 雖文義廣博, 其取津要者. 唯別行, 普賢行願一品, 爲華嚴之關鍵, 修行之樞機也.”

47) [木菴 惠攢]. “右經, 漢明代騰蘭二師, 自西竺馱白馬, 而至因那白馬寺, 以安佛法, 由茲而始. 時道士衆上疏, 以佛道二經, 欲火試. 帝從集白馬寺, 分置兩壇, 乃焚之. 道經燒盡, 獨

3.2.4 『불유교경』

『유교경』으로 약칭되는 『불유교경』은 부처님 열반 이전의 마지막 가르침이다.⁴⁸⁾ 제15장 제38행부터 제18장 제14행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관수제와 장수의 범위는 “四二”부터 “遺三”까지이다. 『불유교경』이라는 경제목과 “後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라는 번역자 표시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그런데 번역자인 구마라집에 대해 『금강경』에서 “沙門”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三藏法師”로 표시해 놓았다. 권미에는 본문보다 두 글자 아래 위치에 다음과 같은 해설이 있다. 이 내용은 『법원주립』 역산부⁴⁹⁾를 간추린 것이다.

“부처님은 주나라 소왕 갑인년(B.C 1027)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서축(인도)의 가유성에서 임신년(B.C 1009) 2월 8일에 출가하시어 설산에서 거주하셨다. 계미년(B.C 998) 2월 8일에 성도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처음으로 화엄을 설하셨다. 임신년(B.C 949) 2월 15일에는 구시성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이 경을 설하시며 말세를 깨우쳐주셨다. (이후) 비구들은 이 계율을 지키면서 성불한다.”⁵⁰⁾

3.2.5 『위산경책』

『위산경책』은 위양종의 창시자인 滄山 靈祐(771~853)가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제18장 제15행부터 제20장 제9행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관수제와 장수의 범위는 “遺三”부터 “山二”까지이다. 저자표시 없이 『위산경책』이라는 제목에 이어 본문이 시작되며, 여기에는 해설이 없다.

本經如舊。於是道衆，及諸士女，俱出家。”

48)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이 경의 주석서가 入藏되어 있다.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2. “佛遺教經 疏二卷 疏科一卷已上智圓述.”

49) 『法苑珠林』, 第100卷 曆筭部 第6.

50) [木菴 惠攢]. “佛以周昭甲寅四月八日生。西竺迦維城，壬申二月八日出家，居雪山。癸未二月八日，成都在寂滅，場初轉花嚴。壬申二月十五日，趣拘尸城終說本經，以喻末世。比丘由持戒，成佛也。”

3.2.6 「수능엄신주」와 「마리지천보살다라니」

「수능엄신주」와 「마리지천보살다라니」는 이를 몸에 지니거나 독송하면 毒害나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呪文이다. 여기에는 번역자 표시가 없는데 주문만을 발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능엄신주」는 마지막 장인 제20장 제10행부터 제20장 13행까지 3행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제20장 제15행부터 제20장 제30행까지 15행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 「마리지천다라니」는 불공이 번역한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 중의 呪文⁵¹⁾ 3종이다. 이 경은 각종 재난이 없어지기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인 마리지천도량에서 외는 경이다. 고려대장경에는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이라는 경명으로 ㄹ함예 편입⁵²⁾되어 있다. 주문이 끝난 다음에는 본문보다 한 글자 아래 위치에 7행에 걸쳐 이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하게 해설해 놓았다. 이 해설은 문자의 생략 등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의 끝부분⁵³⁾을 적절하게 인용해 놓은 것이다.

“오른쪽의 세 가지 주문은 불공이 번역한 『마리지천경』(『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 중의 주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주문은 일체의 장애와 어려움, 번란,

51) 『摩利支天菩薩陀羅尼』. “南無佛陀耶. 南無達摩耶. 南無僧伽耶. 怛姪他. 遏囉迦末斯. 摩囉迦末斯. 蘇途末斯. 支鉢囉末斯. 安怛陀那末斯. 那謨粹都_二合底莎訶. [又] 怛姪他. 阿羅拘隸. 阿囉拘隸. 雞栗底. 薩婆迦囉醯蔽. 薩蒲跋突瑟鱗_二合蔽. 薩婆伊都波達羅鞞蔽. 囉叉囉叉莎呵. 奉請摩利支天呪, 一名摩利支天身呪, 呪曰; 那謨囉跢那_二合夥囉_二合夜耶. 摩唎支唎駄耶. 摩婆帝. 移沙彌. 跢姪他. 婆囉利. 婆駄梨. 囉呵目溪. 薩婆徒瑟擔_二合. 槃駄槃駄娑婆呵.”

52)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한글대장경』 제265책, p.312).

53) 不空 譯,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 “佛告諸比丘, 若有人識彼摩利支天菩薩者, 除一切障難, 王難賊難, 猛毒毒蟲之難, 水火等難. 若人欲行此法者, 一切法中, 此法最勝, 持此呪者, 面向百踰闍那, 一切鬼神惡人, 無能得其便者, 若於難中行時, 晨起誦前身呪, 呪一掬水, 四方散灑, 及灑自身, 若衣襟·若衣袂·若袈裟角, 一呪一結, 總作三結. 卽往難中, 行連誦前二大呪而行. 所有一切事難軍防主者, 悉皆迷醉, 都無覺知之者. 佛說是經已, 告諸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國王大臣, 及諸人民等, 聞佛說是摩利支天陀羅尼, 一心受持之者, 是人不爲一切諸惡所害. 諸比丘, 若有人, 能書寫讀誦受持之者. 若著髻中, 若著衣中, 隨身而行, 一切諸惡, 悉皆退散, 無敢當者. 是諸四衆天龍八部禮佛而退, 歡喜奉行.”

도둑, 맹수와 독충의 재난, 물과 불 등의 재난을 없애준다. (이 주문을 가진 사람은) 면항하여 마음을 명료하게 하면 일체의 귀신과 악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한다. 만약 재난 속으로 가야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 주문을 외면서 물을 뿌리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자신도 적셔질 것이다. …재난 속을 지나더라도 계속 앞의 두 주문을 외우면서 가라. 일체의 재난이 있더라도 군방주는 혼미하고 미혹되어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주문을 써서 가지고 다니며 독송할 사람은 상투나 옷 속에 넣어서 다니면 일체의 죄악이 모두 물러나고 감히 감당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시었다.”⁵⁴⁾

『마리지천다라니』는 내용도 그렇거니와 소개해 놓은 세 번째 呪文 앞에 “『마리지천주』는 『摩利支天身呪』라고도 한다.”는 것과 같이 외부의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문이다. 이 주문은 고려말기에 국내에서 많이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목암 혜찬이 발문에서 두 주문은 “요즘을 생명을 보호하는 부적이 이것이다.”⁵⁵⁾라고 하였고, 또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수진본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⁵⁶⁾에도 범어와 한자진언으로 된 『摩利支菩薩最上心眞言』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⁷⁾

그런데 여기에 수록된 呪文은 고려대장경에 편입된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에 수록된 주문⁵⁸⁾과 대비하면 몇 곳에서 문자의 차이가 보인다. 이에 비해

54) [木菴 惠攢]. “右三呪，不空奉詔所譯，摩利支天經中呪也。佛云：此呪，除一切障難，王難賊難，猛獸毒虫，水火等難。又面向，百踰闍那，一切鬼神惡人，无能得便者。若難中行時，晨起誦身呪，呪一掬水散洒四方，及洒自身，若衣襟，若衣袂，若袈裟，角一呪一結，總作三結，即往難中行連誦，前二大呪，而行所有一切事難，軍坊主者，悉皆迷醉都無知者。又云若人，能書寫誦讀受持者，若着髻中，若着衣中，隨身而行，一切諸惡，悉皆退散，无敢當者。”

55) 木菴 惠攢, [金剛經跋]. “… 但今日護身符子，在是乎。”

56)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57) 수국사 소장 의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은 경문이 끝난 뒤에 梵語와 한자진언이 있고, 그 아래에 독송방식에 대해 “日念一百八遍，或八十遍，或八千遍”과 같이 세주를 달아 놓았다.

58) 『고려대장경』 ㄹ함에 수록된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南無佛陁耶。南無達摩耶。南無僧伽耶。怛姪他。遏囉迦末斯。摩囉迦末斯。蘇途末斯。支鉢囉末斯。摩訶支鉢囉末斯。摩利支夜末斯。安怛陁那夜末斯。那謨粹都底。莎訶。怛姪他。阿囉拘隸。阿囉拘隸。雞栗底。薩婆迦囉醯蔽。薩蒲跋突瑟麟二合蔽。薩婆伊都波 達羅鞞蔽。囉叉囉又莎呵。奉請摩利支天呪，一名摩利支天身呪，呪曰；娜謨囉跢那二合跢囉二合夜耶。摩唎支唎馱耶。摩婆帝移沙彌。跢姪他。婆囉利。婆馱梨。婆囉呵目溪。薩婆徒瑟擔二合。槃馱槃馱。娑婆呵。”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수진본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의 주문은 고려대장경에 편입된 주문과 동일하다. 이러한 차이는 목암 혜찬이 판하본을 정서할 때의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계통이 다른 異本을 따른 것인지는 향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4. 가치와 의의

4.1 새로운 편성

고려시대 『금강경』의 간행은 13세기까지는 권미에 밀교계통의 다라니, 진언, 신주 등을 수록하는데 그쳤으나 14세기에 들어서는 범어로 된 진언은 물론 각종 계, 법계 등에 이르기까지 더 다양한 내용들이 합편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금강경』 간행 분위기는 점차 다른 불경을 합편하는 방식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사경에서도 나타난다. 곧 大淵이 주도하여 사성한 안동 광흥사 소장의 『梵網金剛普門合部』⁵⁹⁾는 『범망경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보살계본』, 『금강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 3가지 경전을 합편하여 사성한 것이다. 이 사경은 뒷부분에 나옹화상시중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옹(1320~1376)의 말년 또는 그 이후인 여말선초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금강경』을 포함한 불경의 합편 경향은 사경에도 수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 『범망금강보문합부』는 『범망경』을 우선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이 『금강경』과는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더욱이 대연은 비슷한 시기에 『범망경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보살계본』⁶⁰⁾만을 별도로 사성한 등 대승불교의 독자적인 보살계인 『범망경』을 중요시하였던 승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는 자신이 선호하거나 유행하던 불경들을 합편하는 방식은 사경에서도 수용할 만큼 보편적

59) 『안동 광흥사 소장 금자사경』.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13호(1999.12.30.)

60)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리움 소장.

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간행된 것이 공민왕 19년(1370)에 간행된 이 『금강경』이다. 당시 발원하고 간행을 책임진 석 청익이 “『금강경』을 간행하여 베풀고자” 시작한 이 일은 목암 혜찬이 다른 불경들과 다라니 등을 합편하고 자신의 해설까지 달아서 간행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당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편성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목암 혜찬은 누구나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또 이를 통해 재액을 물리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금강경』의 뜻은 사람들이 이치를 깨달아 견성성불”한다거나 “『화엄경』의 뜻은 넓으나 가장 요긴한 『보현행원일품』은 화엄의 열쇠이자, 수행의 중추가 된다.”거나 “이 주문을 베끼고 수지 독송을 하면 일체의 악은 모두 물러날 것이다.”는 식으로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하기 쉬운 내용의 해설을 달아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금강경』은 전문성을 갖춘 교학연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위한 기초적인 경전이자 호신을 위한 용도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속속들이 살피면 다행일 것이다.”라는 목암 혜찬의 글에서도 확인이 된다. 곧 이 『금강경』은 간략한 해설을 달아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불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재액을 물리치기 위한 의도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4.2 판본의 독자성

『금강경』은 분량이 많지 않은데다 많이 유통되었던 경전이었으므로 고려시대에 판하본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려 초기인 정종 8년(1042)에 崔積良이 간행한 『금강경』의 권미에도 금강반야무진장다라니 등의 7종의 다라니와 진언이 편성되어 있다. 또 고종 1년(1214)에 탐고가 간행한 군생 사본은 “구성체계는 주해 경판을 저본으로 참조하여 창조적으로 재구성”⁶¹⁾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대개 고려본 『금강경』의 권두와 권미에는

61) 최영호, “1214년에 조성된 해인사 소장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역사 문화적 성격,” 『석당논집』 제61집(2015), 64.

각종 다라니와 진언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편성되었고, 크기도 휴대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독자적인 판하본을 마련하여 간행한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충숙왕 복위 8년(1339)에 강금강이 충선왕 3년(1311) 판본을 중간한 판본과 우왕 13년(1387)에 柳珣와 姜仁富 등이 주도하여 간행한 판본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전자는 뒷부분에 합편된 불정심다라니 등의 범어 다라니와 符印 등은 중간할 때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그러나 판하본 전부를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간행한 판본과는 동등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려본 『금강경』은 다양한 다라니와 진언 등이 포함된 판하본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간행한 판본과 번각 중간본으로 구분된다. 현전하는 고려본 『금강경』 중에서 고종 1년(1214), 고종 15년(1228), 공민왕 12년(1363) 판본 등은 각각 周通富, 悅可, 信之가 판하본을 썼다는 사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판본들은 수록된 내용이 충실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판하본을 쓴 정도에 그친다.

이에 비해 목암 혜찬은 다른 불경과 呪文 등을 합편하는 등 당시 전하던 『금강경』과는 전혀 다른 구성으로 판하본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곧 석 청익에게 판하본을 부탁받자 목암 혜찬은 “반야의 수행과 서원이 없을 수 없으므로 『보현행원품』을 두었고, 또 부처님의 최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사십이장경』, 『불유교경』과 『위산경책』을 보태었고, 나아가 생명을 보호하는 부적인 『마리지천다라니』, 『수능엄신주』를 합편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합편 불경을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목암 혜찬은 이 경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불경과 呪文이 끝나는 곳에 그 불경이나 다른 불서들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해설을 달아 놓았다. 이와 같이 『금강경』을 간행하면서 핵심이 되는 여러 불경과 주문 등을 합편하고, 또 각각 해설을 달아 간행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독자성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 사상을 섭렵한 지식인이자 달필가인 목암 혜찬의 자유롭고 독특한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5. 결 언

공민왕 19년(1370) 9월에 청익이 발원하고, 안집과 안극인 등이 지원하여 간행한 수진본 『금강경』은 지금까지 공개된 고려본 『금강경』 중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금강경』에다 『보현행원품』,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수능엄진주』, 『마리지천다라니』 등이 차례로 합편되어 있다는 것이다. 곧 이 『금강경』은 핵심적인 경전, 석가의 처음과 마지막 가르침,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 그리고 호신을 위한 부적 등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편성된 불경과 呪文 등을 볼 때, 누구든지 이를 수지 독송함으로써 경전을 배우고 또 외부의 재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고자 한 의도로 간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일은 석 청익이 『금강경』 간행을 발원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이와 같은 합편 불경을 완성한 사람은 판하본을 쓴 목암 혜찬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이 쓴 발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목암, 혜찬, 동우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목암은 세속에서의 호이고, 혜찬은 불가에 입문한 뒤의 법명이다. 또한 속성은 박씨, 동우는 이름이다. 그는 고려 말기에 안집의 지우이자 이색, 이송인, 정공권 등과 시문을 교류하며 지냈던 당대 최고 수준의 시인이자 달필가였다. 그는 1359년 이전에 승려가 되었다가 이 금강경을 간행한 이후 다시 환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암 혜찬은 『금강경』에 합편한 불경과 呪文을 군더더기라고 표현하였으나 사실은 핵심적인 불경이자 호신을 위한 주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사람들이 이 『금강경』을 살피우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 『금강경』은 몇몇의 불경 합편에 그치지 않고 당대 유행하던 주문까지 함께 편성하였다. 그래서 이전의 『금강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그가 사교가 자유로운 문인출신의 지식인이자 승려였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그는 수록한 불경과 주문이 끝난 다음에는 그 불경이나 관련된 주석서 등에서 내용을 발췌하거나 인용하여 만든 간략한 해설을 달아 놓았다. 이렇게 『금강경』을 간행하면서 자신의 해설을 다는 것은 이전의 불경에

서는 볼 수 없는 새롭고 특색 있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 『금강경』은 편성과 구성에서 독자성을 갖춘 고려의 판본인 것이다.

한편 이 『금강경』에 수록된 「수능엄신주」와 「마리지천다라니」는 해당 불경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외부의 재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 독송하는呪文이다. 이들을 『금강경』에 합편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당시의 국내외 정세와 불교계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곧 간행 2년 전의 원나라의 멸망과 명나라의 건국은 불안한 국내정세를 유발하였고, 불교계 역시 밀교의 현세구복적인 다라니 신앙이 급성장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불교계의 변화가 주문을 뒷부분에 편성시키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이 『금강경』은 2종의 핵심적인 경전, 3종의 기초적인 경전 그리고 2종의 주문에다 간략한 해설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편성은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유일하고 독자적인 방식이다. 곧 문인출신의 승려가 자신의 방식으로 새롭게 편성하여 간행한 고려의 독자적인 합편 불경인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이 『금강경』의 가치이고, 傳存의 의의로 볼 수 있겠다. 또 합편된呪文을 통해, 당시 대중적인 주문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다라니 신앙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라는 부가적인 가치도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남권희. “淸州牧 元興社 刊行의 金剛般若波羅密經과 高麗時代의 金剛經 刊行.”

『고인쇄문화』 제6집(2000. 1).

목정배. “한국금강경유통고.” 『불교학보』 11집(1974. 12). 220-223.

이상백. “『佛祖三經』의 성립과 저본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55-178.

- 이언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경명에 대한 소고.” 『유학연구』 제32집(2015. 5). 401-429.
- 정병삼. “고려 후기 鄭晔의 불서 간행과 불교신앙.” 『불교학연구』 제24호(2009. 12). 403-436.
- 조원교. “益山 王宮理 五層石塔 발견 舍利莊嚴具에 대한 研究.” 『백제연구』 제49집(2009. 2). 61-96.
- 채상식. “13세기 전반기 간행한 『금강경』 사례들과 사상적 의미.” 『석당논총』 제61집(2015. 3). 111-137.
- 최범술. “海印寺寺刊鏤板目錄.” 『동방학지』 11권(1970). 1-95.
- 최영호. “1214년에 조성된 해인사 소장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역사·문화적 성격.” 『석당논총』 제61집(2015. 3). 45-77.
-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 第138輯(1944. 11).

[원전 및 단행본]

『금강경』(1245), 『금강경』(1339), 『금강경』(1370), 『금강경』(1387), 『금강경』(1869), 『금강경』(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불조삼경』(1361), 『불조삼경』(1384), 『법망경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보살계본』(리움 소장), 『보현행원품』(1245),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수국사 복장전적), 『원재선생문고』, 『금암시집』, 『목은시고』, 『도은선생시집』, 『쌍매당선생협장문집』, 『운곡행록』, 『설곡시고』.

국립중앙박물관. 『빛나는 옛 책들: 해전 송성문 기증 국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3.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문대원. 『국역금강반야바라밀경』. 대구: 동화사, 1962.

천혜봉. 『고려전적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0.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범우사, 2001.

[전자정보원]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http://kb.sutra.re.kr/ritk/index.do>>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팔만대장경』. <<http://i80000.or.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글대장경』.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main.html>

『大正新脩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 <<http://21dzk.l.u-tokyo.ac.jp/SAT>>

